

(사)한국문인협회 포천시지부장 이재욱

선현의 칭호를 만 文學儻 制定해야

포천시는 조선시대 선비의 고장이었다. 선비정신이 담보된 현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각 문화예술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으로부터 각 분야의 활동 및 향후 발전방향을 듣고 보도하기로 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눠 가져 포천시 문화예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새해 덕담
새해에는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기 전에 남들이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남들이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겸손하게 노력하여 서서히 무대위로 올라서야 한다. 포천시민은 동적인 것에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올해는 정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문인협회에 등단회원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할 계획이다.

▶2006년 문인협회의 가장 큰 성과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

는 포천문학 8집이다. 포천문학을 발행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은 것은 시화전이다. 지난해 시화전은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포천시민의 관심가운데 개최됐다. 특히 수록화의 경우 애호가에게 매대되기도 했다. 시화전 기간동안 회원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전시회를 즐기기도 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7년 사업 중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문예대학과 백일장이다. 문예대학은 보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이 프로그램에 꼭 맞는 강사 섭외를 통해 시민 중에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백일장은 학교 학생들에게 맞추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 도포천중학교와 적극 협의를 계획이다. 아울러 백일장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람이다. 포천시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회원중 중앙문단에 등단 현황은?

5~6명 정도다. 등단한 작가를 하더라도 작품을 한국문인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앙문단에 등단할 수 있다. 현재 8명의 등단작가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올해 안에 서류와 작품을 받아 신청할 계획이다.

▶지역문단 가꾸기의 구체적인 활동이 있나?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현재는 회원들이 년중 행사를 통해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학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특강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일전에 포천중학교에서 정기적인 강의를 요청했으나 아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인협회 활동에 포천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
정적인 예술인 문학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시낭송회와 시화전, 문예대학, 백일장 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글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포천시의 협조는?
예산지원을 늘려주었으면 좋겠



다. 백일장 시상식에도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포천의 유명한 선현의 칭호를 만 文學儻을 제정하고 싶다. 시와 협의해서 기획서를 만들고 예산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52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원천석은 함흥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시문을 공부하여 문장에 이름이 높았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후 잠시 국자진사(國子進士)가 되었으나 벼슬을 탐하지 않은 채 곧 시골로 물러나 목은 이색 등과 왕래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고려가 멸망하자 그는 뜻을 함께하는 80여 명의 동지들을 모아 치악산 정상에 제단을 설치하고 단군으로부터 고려 왕조까지의 임금에게 제사를 지냈다.

일찍이 그는 이성계와 함께 공부하였고, 이방원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태종은 보위에 오른 후 여러 번 스승에게 벼슬을 주어 모시려 했지만 원천석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어느 해 태종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치악산 밑에 은거하고 있는 스승을 찾아갔다. 그러나 원천석은 임금의 행차를 미리 알고 몸을 피했다. 그러면서 강가에서 빨래하는 할머니에게 거짓으로 말했다.

“손님이 와서 나를 찾거든 이 냇물을 따라 내려갔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한 후 원천석은 치악산 계곡으로 숨어버렸다. 태종은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며 스승을 찾았으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태종은 하는 수 없이 스승이 은거해 있는 치악산을 향해 절을 올리고 되돌아 왔다.

태종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도 다시 스승을 불렀다. 이 때에 이르러야 원천석은 환호를 입고 태종을 보았다. 그때 태종은 여러 손자들을 불러 스승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우리 손자들이 어때합니까?” 원천석은 여러 손자들을 훑어보다가 한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태종)를 무척 닮았구려.” 그리고 나서 원천석은 다시 그 아이에게 훈계하듯 말했다. “모름지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원천석이 타이른 그 아이는 훗날 단종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이었다. 원천석은 태종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려조의 왕궁이 있던 만월대(滿月臺)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왕궁

터는 황폐해져 있었다.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시조 한 수를 지어 읊었다.

흥미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牧畜)에 불렸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눈마저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굶다던고

굶어질 절개라면 눈 속에 푸르리라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 뿐인가 하노라.

원천석은 여러 권의 문집을 집필하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자기 자신이 저술한 책들을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굳게 채워두었다.

이윽고 죽을 때에 이르러 그는 가족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쓴 글들은 마땅히 가묘(家廟)에 갖추어두고 조심해서 지키거라.” 그리고 나서 원천석은 그 상자 위에 한 구절의 글을 써 붙였다. “내 자손이 만일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열지 말라.”

그 것은 자신의 저술 내용이 후세에 전하면 조선 왕조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의 유언대로 상자는 손자 대까지 자물쇠를 열지 않고 깊이 간직해 두었다. 그러나 증손 대에 이르렀을 때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가족회의를 열고 그 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선조께서 비록 간곡하게 유언하였으나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그 글 때문에 우리가 해를 입을

려려야 없다. 그러나 한번 열어보자.”

가족들은 마침내 상자를 열고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족들은 원천석의 글을 읽고 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고려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조선에서 편찬한 역사와 판이한 내용이었다. 가족들은 서둘러 상자를 닫고 숨을 멈추었다.

“이 내용은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서 불태워 버리는 것이 낫겠다.”

그러하여 시집 다섯 권만 남겨두고, 그의 저서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말았다.

원천석(元天錫)과 정선철현(鄭善七賢) 1330년(충숙왕17) ~ ?

본관은 원주(原州)이며 자는 자정(子正). 호는 윤곡(耘谷)이다.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나 이름이 났으며, 학문이 해박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고려 말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개탄하면서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다.

일찍이 방원을 가르친바 있는데, 그가 즉위하자 기용하려고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태종은 원천석의 아들 형(洞)을 기친(基川: 지금의 풍기) 현감에 임명하였다.

그의 문집에 고려의 쇠망을 애석하게 여기는 몇 편의 시가 전해오고 있다. 그는 또 만년에 야사 6권을 저술하고 그것을 감추어두고 잘 지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고려가 멸망할 당시 일곱 명의 절개 지는 선비가 조선의 조정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정선 서운산 아래 통골 속에 은거하였다 한다. 이들을 정선철현이라 부르는데, 전오륜, 김충현, 고천우, 이수생, 신안, 변귀수, 김위 등이다. 하지만 이색, 최문한, 전오륜, 원천석, 서진, 구홍, 김재로 기록된 곳도 있다.

이때 전오륜이 방곡의 아픔을 달래는 노래를 짓고 함께 불렀는데, 이 노래는 훗날 ‘정선 아리랑’의 모태가 되었다고 한다. 정선역 광장에 아들이 불렀다는 도원가곡비(桃源歌曲碑)가 세워져 있다.

뮤지컬(Musical)이란 무엇인가?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본지는 뮤지컬의 본고장 영국에서 뮤지컬을 공부하고 현재 대전대학교 연극영화학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윤우영 교수의 뮤지컬 이야기를 연재한다. 이 연재를 통해 뮤지컬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최근 공연예술계에 가장 인기 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뮤지컬은 정극(드라마)의 메카였던 서울의 대학로마저 점령했다. 최근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70% 이상에서 뮤지컬이 공연되어지고 있는데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의 총아로 관객에게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뮤지컬이란 무엇인가? 뮤지컬은 뮤지컬 코메디(Musical Comedy)의 약자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든 음악형식과 춤, 드라마 등이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이다. 작품에 따라 드라마를 중요시하는 뮤지컬이

있는가 하면 오페라처럼 음악이 주축인 뮤지컬이 있고 춤이 모든 요소를 압도하는 뮤지컬도 있다. 일반적으로 댄스 뮤지컬과 쇼 뮤지컬(Dance/Show Musical: 춤/쇼가 중심), 북 뮤지컬(Book Musical: 줄거리 중심), 오페라적 뮤지컬(Operatic Musical: 오페라적 대사 없이 음악 중심), 컨셉 뮤지컬(Concept Musical: 줄거리나 이야기보다는 표현양식이 중심)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음악형식도 오페라(Opera)적인 무거운 가극과 가벼운 오페레타(Operetta) 형식, 민속음악(Folk), 재즈(Jazz), 록(Rock), 최근에 팝(Pop)과 크로스 오버(Cross Ov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음악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에델바이스》라는 명곡이 나오는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작사가로 유명한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는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작사가 중 한사람이다.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는 뮤지컬을 정의하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뮤지컬의 소재와 형식 그리고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배우와 관객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배우는 무대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관객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이다. 무대 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으며 대리체험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뮤지컬은 대사로만 일관하는 정극과는 달리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배우나 관객 모두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연 예술이다. 작품의 구성적인 면에서나 음악적인 면에서 타 장르의 공연예술보다 다양한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뮤지컬의 시작은 뮤지컬의 다양한 형식만큼이나 의견이 분분하다. 그 출발점을 1728년 존 게이의 《가지 오페라(Beggar's Opera)》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800년대 중반,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오페라바흐의 오페레타를 기점으로 하는 논자들도 있고 탈 오페라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19세기 말을 기점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모두가 뮤지컬의 현대적인 형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작품으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고 있는데 본 이야기에서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유행한 타 장르 즉, 발레스크(burlesque), 리뷰 (Review), 보드빌

(vaudeville) 혹은 버라이어티(variety), 뮤지홀(Music Hall)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뮤지컬이 시작된 20세기를 10년 단위로 묶어 이야기를 진행하려 한다.

따라서 미국의 브로드웨이(Broadway)를 중심으로 영국의 웨스트 엔드(West End)와 기타 유럽의 뮤지컬 배우, 작곡가, 연출가 등의 생애와 주요작품이 다뤄질 것이며 뮤지컬 제작의 뒷이야기와 아사 등과 함께 할리우드 뮤지컬(Hollywood)과 한국의 뮤지컬도 연대별을 따라서 간단히 살펴해보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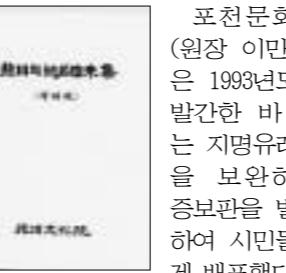
이야기 진행의 개략적인 순서
▶발레스크(burlesque) ▶민스트럴 쇼(minstrel show) ▶리뷰 (Review) ▶보드빌(vaudeville) 혹은 버라이어티(variety) ▶뮤지홀(Music Hall) ▶1871년 이전의 뮤지컬 ▶최초의 북 뮤지컬(Book Musical) ▶뮤지컬(재즈시어)(1927) ▶1929년 《브로드웨이 멜로디》(The Broadway Melody) ▶무성영화와 유성영화 ▶1930년대 뮤지컬 ▶1940년대 뮤지컬 ▶미네사본 ▶미네사본과 관련된 배우, 작가, 공연 예술인들 ▶TV의 등장과 공연과 뮤지컬 영화산업의 태보 ▶1950년대 뮤지컬(윌리엄 셰익스피어 영화의 마지막 전성기) ▶1960년대 뮤지컬 ▶17. 영국 뮤지컬의 부상-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리이스의 뮤지컬들 ▶1970년대 뮤지컬 ▶1980년대 뮤지컬 ▶1990년대 이후-현재

*위의 순서는 연대가 순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각각의 순서 이동이 있을 수 있음. 배우나 작곡가들이 20-30년 이상 활동한 경우가 많고 다양한 형식의 작품에 참여한 경우가 있어 부득이 시대를 넘나들 수 있음. *시대에 따라 뮤지컬로 분류할 수 있는 퍼포먼스나 음악극 등이 첨가될 수 있음.

을 비롯하여 효자 열녀문이 여러 곳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그치지 않았다. 장공백인(長公百忍)장공이 백 번 참아낸 천고차칭(千古難稱) 천고에 칭소되는데, 오류동문(五柳同門) 다섯형제 함께 살며 필 미가승(關 加承) 그 아들로 계승했네.-영의정 이의현이 지은 비문중에서-

우리는 이 효우비의 가치를 살펴보자. 효우비는 자작리에 있는데 영조때 영의정 이의현이 짓고 예조참판 김상옥이 썼으며 뒷에는 봉래 양사언 선생이 짓고 썼다고 한다. 우리 고장의 최고의 문장가이자 도인(道人)이자 호걸이었던 문중의 최고의 자랑이자 내고향 포천의 최고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방을 다니다 보면 어느 곳에는 효자문 한 곳도 없는가 하면 일본이나 미국에 가 보면 자랑할만한 곳이 없는지라 가짜 유적을 만들어 관광시키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생각난다. 내고향 포천에는 충신문 세곳

포천의 지명 유래집 발간 포천문화원, 고증과 구술 받아 기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1993년도에 발간한 바 있는 지명유래집을 보완하여 증보판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지명유래집 증보판은 2004년도에 포천시 향토사연구소(소장 이석구)가 중심이 되어 연구 위원과 자료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2년여 동안 마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명에 얽힌 유래들을 찾고 정리하여 발행하게 된 것이다.

지명유래집 증보판은 포천시의 인명과 소출을 9개리, 군내면 8개리, 내촌면 6개리, 가산면 8개리, 신북면 12개리, 청수면 7개리, 영종면 6개리, 일동면 6개리, 이동면 4개리, 영북면 7개리, 관인면 6개리, 화현면 3개리, 포천동 2개동, 산단동 4개동에 대한 지명유래를 기록

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지명유래집 발간사를 통해 “지역이나 마을의 지명들은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지고 또 전래되어온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삶의 흔적들이기에 더욱 정감이 가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후세에 잘 전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자료의 모집과 정리를 맡아 수고해주신 이석구 향토사연구소장님과 변진수 책임연구 위원님, 자료제공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송의 <포천 이야기> (18b)

효우정려문(孝友旌閭門)

‘효우정려문’ 하면 여러분은 조금은 의아해 할 것이다. 효자문도 아니고 열녀문도 아니고 ‘효우문’이라고 하면 잘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고향 포천의 우리 민족의 자랑인 대가족제도의 표본인 효도와 우애(孝道·友愛)의 대표적 사례가 있었으니 이른바 ‘효우정려문’인 것이다. 충신문, 효자문, 열녀문 중 효자열녀문은 있으나 형제간의 우애와 효도의 가정의 기념비적 사례가 역사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내 고향의 최고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류인선(柳仁善: 1542년~성종초 23년)은 문화류씨로 포천 자작리에서 출생하였

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쓰며 착하였으며 효성이 지극할뿐만 아니라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모자를 짓고 삼년 시묘를 하는 자였다. 아우 은선(隱善) 예선(禮善: 현령, 문신부원군, 증영의정) 지선(智善:참판) 정선(貞善:우후) 등 5형제가 한 집,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우애가 돈독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나라에서 경기관찰사(현 도지사)에게 어진 사람을 천거하라는 영이 떨어지자 증종 30년(1535년) 관찰사 윤은필이 효자이자 우의가 돈독한 류인선 5형제를 나라에 천거하여 표창케 하였다한다. 장계(보고서)를 받은 예조관서

초대 漢詩 霜葉紅於二月花(상엽홍어이월화)



李曉鍾
포천한시사

秋葉酬霜白日斜(추엽감상백일사)
추엽이 서리에 별을 향해 비치고
紅黃染色景尤嘉(홍황염색경우가)
홍황으로 염색되어 경관이 더욱 아름답다.
幻成爛熳斑斑繡(환성찬란희반수)
찬란하게 꾸며져 이렇지게 수놓을것 같고
粧出嬋娟麗紫紗(장출선연려사)
선연하게 장출된 것은 붉은 비단같이 곱구나
玉露淒涼携杖路(옥로취량휴장론)
옥로는 휘장로에 처량하고
金風蕭瑟讀書家(금풍소슬독서가)
금풍은 독서가에 우수수네
丹楓菊野爭妍節(란풍양국쟁연절)
단풍아국이 쟁연하는 계절에
與友敖遊興趣加(여우오유흥취가)
벗과 더불어 오유하니 흥취가 더해지더라